

2025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및 참석자

1. 일시 : 2026. 1. 13.(화) 17:00 ~ 18:30

2. 장소 : 서울여대 행정관 213호 중회의실

3. 참석 위원(총9명 중 9명)

가. 교직원대표 : 위원장 박남춘 기획처장, 박진규 학생·인재개발처장, 김홍석 기획예산팀장

나. 학생대표 : 염지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염원진 총학생회 비상대책부위원장, 이호원 일
반대학원 원우회장

다. 외부전문가 : 김문규 회계사, 길혜연 회계사

라. 동문대표 : 이귀우 총동문회장

■ 안건

1. 심사.의결 방법 논의

2. 2025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 적립금 용도 변경(안)

3. 2025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사.의결

4. 2025학년도 잉여금 처리 심사.의결

5. 2026학년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 책정

6. 2026학년도 자금예산(안) 심사.의결

7. 기타

■ 내용

1. 심사.의결 방법 논의

위원장이 회의 안건 심사.의결 방법으로 의견이 대립하여 찬반 투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6조 제4항 의거하여 표결로 진행하되, 논의 안건이 기존과 동일하게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와 재청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
고 재청하다.

2. 2025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 적립금 용도 변경(안)

위원장이 2025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 적립금 용도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위원장이 2025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 적립금 용도 변경(안)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
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재청하다.

3. 2025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사.의결

위원장이 2025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192,091,731원 증가한 98,832,558,

271원임을 설명하다.

위원장이 2024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재청하다.

4. 2025학년도 잉여금 처리 심사의결

위원장이 잉여금에 대해 설명하다. 잉여금 처리에 관한 원칙은 명시 및 사고 이월 등 목적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립 또는 학생지원 경비로 사용하기로 함임을 설명하다.

위원장이 잉여금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재청하다.

5. 2026학년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 책정

위원장이 2026학년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 책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가. 등록금 인상 배경

- 1) 지속된 적자로 인한 기금 고갈
- 2)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적자 심화 가속화
- 3) 등록금 인상 타 대학 대비 우리 대학의 경쟁력 약화 우려

나. 개요

- 1) 본교 학부 등록금은 2013학년도 인하 후 2024학년도 까지 동결
- 2) 본교 대학원 등록금은 2011학년도 인상 후 2024학년도 까지 동결
- 3)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66%)*1.5배 = 5.49% 이하
였으나 본교는 '청년희망 3법' 입법 예고를 반영하여 (3.66%)*1.2배 = 4.4%로 산정
- 계절학기 : 수업료 학부 동결, 대학원 수업료 인상분 반영
- 4) 학부 등록금 인상 시 인상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제한
- 3년 평균 지급액 : 10억원

다. 서울지역 사립대학 평균등록금 현황 : 서울지역 34개 사립대학 중 1인당 평균등록금 22위

라. 2026학년도 대학(학부)

- 1) 계열별 수업료 전년 대비 3.19% 인상 (단, 외국인은 4% 인상)
- 2) 단, 정원 외 외국인(외국인특별전형(부모가 모두 외국인)) 입학자는 1학년 2학기부터의 수업료는 1학년 1학기 수업료 적용
- 3) 계절학기 수업료는 전년 대비 동결

마.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 1) 전년 대비 수업료 3.19% 인상 (단, 외국인은 4% 인상)
- 2) 전년 대비 입학금 동결
- 3) 단, 정원 외 외국인 입학자의 입학금은 동결하고 2학기부터의 수업료는 1학기 수업료 적용
- 4) 외국인이 계절학기 수강 시 1~3학점은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은 수업료 전액 적용

○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었는가?

- 작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시 올해와 같이 활용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총학생회와 함께 활용 계획에 대해 의논하였고, 등록금바로세우기위원회를 통하여 그 계획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분 활용 계획(안)에 AI 부트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 캠프는 일부 학생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전체 학생의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

- 전체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운영할 것이며 주로 방학 때 진행할 예정이기에 참여가 가능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올 겨울방학인 1월 말에 학생 50명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국고지원이 없는가?

- AI 부트캠프는 교육 혁신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AI 관련된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있기에 국고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분 활용 계획(안) 중 총학생회 행사지원/학생자치기구 업무 지원의 경우, 올해 가을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에 지원할 계획인가?

- 기존 학생지원 외에 등록금 인상분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가을 축제를 시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회 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 이런 인상분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등록금바로세우기위원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 그렇다. 2025학년도에도 등록금 인상분 활용 계획안이 있었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예를 들어 총학의 요구 사항이었던 신입 교원 초빙과 관련한 예산이 집행되었고, 국가 2유형 장학금에 대하여 10억원이 교내 장학금으로 보존되었다. 마찬가지로 교내 환경개선에선 무선 랜 교체, 기숙사 온수 수질 개선 공사, 은행나무 열매 수거 조경 관리비, 강의실 일체형 책걸상 교체, 인문사회관 화장실 개선, 제1과학관 승강기 교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작년에는 총 23억 6천만 원이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 올해엔 등록금바로세우기위원회 진행 계획이 없기에 아마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를 할 것 같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분 활용 계획(안) 중 학생 복지, 학생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학생의 등록금을 더 받는다는 것은 학생회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등록금바로세우기위원회랑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학생회와 일반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의 실질적인 사용에 격차가 있다고 느껴진다. 예를 들어 신입 교원 초빙의 경우, 단순히 인원수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강의력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

란다는 문제 제기 의견도 있다.

- 그 부분은 기획처뿐만 아니라 교무처에 관련된 것으로, 보다 훌륭한 교원 초빙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초빙된 교원이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 특히 교수학습센터에서 교수님들의 AI 활용 능력 발전 등을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교수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앞서 언급한 학생회로 복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함은 총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예산 말고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의미인가? 아니면 시설 투자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하는 의미인가?

- 우선 학생 복지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 어떤 방향으로든 학생들에게 지원이 돌아간다면 의미 있는 계획이겠으나, 올해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기에 학교에서 도움을 준다 하여도 학생들에게 계획과 다르게 적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더 받고 싶은지 의견을 모아보는 등의 계획이 있는가?

-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은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사실 자체이기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학생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 폭 자체가 적어야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등록금이 퍼센트 단위로 인상되다 보니 등록금 인상 시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르는 계열이 아트앤디자인스쿨 계열이다. 등록금인상분활용계획(안)을 보니 요즘 AI나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내용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인 것은 맞으나, 실질적인 의견으로 아트앤디자인스쿨의 강의실이나 냉난방 등의 환경이 등록금에 비해 열악하다는 의견이 항상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상분 활용 계획에 있어 AI나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아트앤디자인스쿨 학생이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느껴진다. 아트앤디자인스쿨이나 인문사회보다 AI에 조금 더 중점 된 이유는 국가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인가?

- AI 관련 내용이 강조된 이유는 국가가 R&D, AI 관련된 분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AX라 하여 AI 트랜스포메이션, AI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기에 학교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나 예체능 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어느 항목에 있다고 하여 꼭 그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며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서 학생들과 논의해 가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인상분활용계획이 학교 예산의 전부가 아니며 추가적인 등록금 인상분의 활용 계획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인 학교의 전체 예산 안에 예체능 계열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 대한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다.

○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분 활용 계획(안)에 전년도 국가2유형 장학금 보전액이 1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원이 더 늘어난 1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어떠한 이유인가?

- 우선 직전 3개년도 평균으로 한다면 10억원 정도이지만 이웃사랑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들을 활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하였다.

○ 학생 입장에서 2년 연속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더불어 국가2유형 장학금은 5분위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국가2유형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6~9분위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학교가 국가장학금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2유형 장학금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고분위 학생들 중에게도 학교의 교비 장학금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다. 학생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단과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으나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합할 경우 인문사회 계열 6분위 학생들까지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으며, 자연 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3분위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국가2유형 장학금에 의존하지 않고, 대체하는 예산을 활용하여, 전액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더 정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열렸다고 볼 수 있다.

○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분 활용 계획(안)에 교내 장학금 추가 지급 등의 지원 계획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포함하는가?

- 신입 교원 채용이나 환경 개선 등의 교육 서비스는 당연히 대학원생도 대상으로 한다. 우선 학부생들 위주로 계획이 특정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기에 대학원생들에게 인상분 활용 계획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을 반영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

○ 등록금 인상분 활용 계획 시행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 2025학년도 결산 시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결산 자료는 4월에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된다.

위원장이 2026학년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 책정에 대한 추가 논의 사항 여부를 묻고 투표를 진행한다.

출석인원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2026학년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 책정이 가결되다.

6. 2026학년도 자금예산(안) 심사.의결

위원장이 2026학년도 자금예산(안)은 108,831,899,918원임을 설명하다.

○ 학교 운영 수익을 보았을 때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3%인데 타 대학 대비 높은 편인가?

- 본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타 대학 대비 높은 편이다.

○ 연구학생경비가 감소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축소되는 것인가?
 - 전체적인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실험실습비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많이 충당하였는데 그 부분이 감소되는 것이다. 다만 학생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 안들을 받아 학생지원비는 증가하는 안으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보수적으로 편성한 예산 안이다.

위원장이 2026학년도 자금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재청하다.

2026년 1월 13일

위원장	박남춘	박남춘 (서명) <small>박남춘 (2026년 1월 22일 11:15:23 GMT+9)</small>
위원	박진규	박진규 (서명) <small>박진규 (2026년 1월 22일 16:45:46 GMT+9)</small>
위원	김홍석	김홍석 (서명) <small>김홍석 (2026년 1월 23일 12:29:10 GMT+9)</small>
위원	염지원	염지원 (서명) <small>염지원 (2026년 1월 22일 11:12:21 GMT+9)</small>
위원	염원진	염원진 (서명) <small>염원진 (2026년 1월 23일 08:17:01 GMT+9)</small>
위원	이호원	이호원 (서명) <small>이호원 (2026년 1월 22일 16:14:56 GMT+9)</small>
위원	김문규	김문규 (서명) <small>김문규 (2026년 1월 22일 18:30:13 GMT+9)</small>
위원	길혜연	길혜연 (서명) <small>길혜연 (2026년 1월 22일 19:35:25 GMT+9)</small>
위원	이귀우	Leeuw (서명)
기록	김채이	김채이 (서명) <small>김채이 (2026년 1월 22일 10:46:14 GMT+9)</small>